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9주간

제9주간: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가는 말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닮고자 기도해 왔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삼으신 것이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지구상에서 생명이 진화하고 세대를 거쳐 여러 특성들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 하느님께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가운데 인간 생명을 서서히 끌어내셨음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태중에서 인간의 육신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직접 영혼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때가 차자,” 복되신 삼위 일체의 제2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나자렛 예수는 우리의 육신을 취해 사셨지만 죄를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달리 인간은 결코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분을 알아보기를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의하고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은 그분의 목숨을 끊어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나 우리 인간 삶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육신으로 일어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바로 ‘부활한 삶’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특성’이 물려 내려옵니다. 우리가 저마다 ‘네’라고 대답해야 그 특성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굳은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전하신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인간 실존에 새로운 단계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나고 자라고 죽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부활’이라는 단계가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가 들어온 방식도 새롭습니다. 빅뱅에서부터 진화하거나 흙에서부터 생겨난 특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왕좌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진 특성입니다. 바로 성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아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은총으로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즉 죽음을 이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고(로마 6,3),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그분처럼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로마 6,5 참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을 보는 관점과 겪어 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삶을 끝내는 것을 봅니다. 모든 생물이 시작하고, 성숙하고, 노화하고 결국 사망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죽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주기를 겪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성인의 말씀처럼,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온 우리 인간을 끌어안으셨고, 죽음마저도 끌어안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죽음을 (1)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도 않고 (2) 죄에 대한 벌로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결합된다고 봅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으시도록 말한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1코린 1,9 참조) 삶도 함께하고 죽음도 함께하며, 마침내 부활도 함께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853년에 열린 공의회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고, 전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05항)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어 나는 죽음 이후에도 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일을 해내셨다. 그렇다. 그러니 내가 일어서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해야 한다.

기도 도움말

예수님의 수난에 관해 기도하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다. 그런 묘사는 5세기에 시작되었고 1300년경에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최근에는 예술가들이 그분의 고통을 대단히 격렬하고 참혹하게 그린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별반 다른 데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할 때, 배신당하고 처형당한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세요.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 대꾸하지 않으신 것, 그분이 친구들, 적대자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이 분이 무엇을 기꺼이 감내하였는지 헤아려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와 모범이 될 것을 의식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마감시킨 참혹한 상처들을 어째서 그분 자신 몸에 그대로 두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한 가지 표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몸서리치고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환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예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거룩한 변모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루카 9,31) 예수님께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친한 벗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을 면해 달라고 성부께 애원하였습니다. 당신이 괴로울 때에나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의 이 고뇌에 찬 기도를 기억하세요. 어떤 이들은 고통을 면하게 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웬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제발 이것을 저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여전히 아버지를 전적으로 절대로 신뢰합니다. 창조주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절대로 사랑하고 신뢰하시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증오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아버지 하느님이 바라신 것은 계속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암이 커지거나 재정이 위태로워지거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신비의 한가운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적 무질서가 당신을 덮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실 때에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위엄을 갖추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요한 18,8) 요청이 아니라 명령인 거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게 놔두어라.”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보았지요. 이것을 보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또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어머니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없애고 당신 원수들을 끌어버릴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원수들이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마르 15,31)하면서 조롱할 때에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힘든 일을 겪어야 할 때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톨릭 교리는 “고통을 견뎌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508항)고 가르칩니다. 이는 바오로 성인이 콜로새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골로 1,24)

고난이 일어나게 놔둔다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전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미련한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동참하는 것이며,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하느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하느님께는 죄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가 있었다. 그
러나 고통을 모르는 자녀는 한 명도 없다.

— 성 아우구스티노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믿음과 마찬가지로 희망도 덕목입니다. 덕목도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기도 중에 떠올려 보세요. 희망을 강하게 느끼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2. 이번 주간에: 성모님과 사도들은 수난의 시기에 음식을 먹을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에 좋은 도움이 되도록 그분들과 공감하면서 단식이나 절식을 해 보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은 다음에야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라자로를 다시 살려 내시어 당신의 신적 권능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11,17.21-27.32-44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누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느냐?”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단상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이 라자로를 소생시킨 일을 관상하기 전에 숙고하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라자로는 차갑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타가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요한 11,3) 하고 전했는데도 그들에게 늦게 오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처럼 예의 바르고 섬세한 분이 전언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서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도착하시어 마리아, 마르타와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괴로워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한 11,36)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르타가 말리는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시

신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니다.

라자로는 자기 뼈와 신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뼈와 근육과 함께 자기 이름 “라자로!”를 느꼈습니니다. 몸에 기력이 느껴졌습니다. “라자로야!” 어깨와 엉덩이 밑에 차가운 돌이 느껴졌고 발꿈치 밑에 딱딱한 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들었습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는 나갔습니니다. 그가 나오자 그를 묶었던 천과 염포가 풀렸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얼굴이 보이자 그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니다.

당신이 죽음의 잠에 떨어질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례 때 받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당신 이름을 들을 겁니다. 빛이 보이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모든 성인과 천사들도 볼 것입니다.

메모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당신의 삶에 성금요일이 없다면 부활 주일도 있을 수 없다.

- 풀턴 천 주교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의 발 씻음을 관상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물과 수건을 갖고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으실 때 당신의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2. 이번 주간에: 악의 세력이 그분을 파괴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이때에 당신은 겸손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당신에게 열어젖히십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사도들이 낮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겹옷을 벗어 옆에 두고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물 대야를 가져옵니다. 사도들의 발을 모두 씻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13,1-15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나의 존재 전체

조카가 배우자와 헤어집니다. 37년 같은 일을 해 온 사람이 어느 날 감원 대상에 오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립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적을 청하여라. 필요한 만큼 많이 청하여라.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

[illegible]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그분 선하심의 바다로 몸을 던집시다. 거기서는 모든 실
패가 취소되고, 근심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 십자가의 성 바오로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 생애의 사건들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또는 묵상이나 관상의 방법으로 그 사건들을 기도할 때 나자렛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알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이번 주간에: 가족이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 의식 속에 떠오르거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그리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사도들이 낮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겹옷을 벗어 옆에 두고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물 대야를 가져옵니다. 사도들의 발을 모두 씻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요한 13,1-15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주님의 만찬에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떠올려 본다. 나는 하기를 바란다.

“제 전부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라고 청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내드리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오시어 내 발을 씻어 주신다. 그러면 나는 할 것이다.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하느님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확성기다. — C.S. 루이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의 고통에 관해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때로 고통에 대한 공감이 자신을 향하게 하기 때문이죠.
방을 어둡게 해 보세요. 예수님이 겪으신 어둠의 상징으로 말이지요.
2.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 가해진 불의를 종종 생각해 보세요. 악의와 증오가 가해질 때에는 슬퍼했습니다. 먼전에서 사
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하루에 잠깐씩, 몇 분이라도 생
각해 보세요. 예수성심 성화나 십자가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이 힘든 기도를 바치는 동안 친한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겪어야 할
일을 건너뛰고 싶다고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친
구들은 그분을 위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14,32-42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이나?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
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단상

영광의 표징

우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1요한 4,8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자렛 예수님이 수난 가운데 바로 사랑의 행위를 하신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성 이냐시오는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행해집니다. 이 행함은 ‘상호 나눔’인데, 사랑 하는 이가 사랑받는 이에게 주고, 사랑받는 이는 선물을 받아들이며 다음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사랑이 이런 류의 나눔이라면,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고통을 나누실까요? 무한하신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하시어 우리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 가한 고통까지도, 당신 성심으로 취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긴다.”(이사 54,8)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 산모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이 겪는 것에 대해 하느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다가 위험한 부상을 입었을 때 하느님이 그의 열중과 쓰라린 괴로움을 아실까요?

하느님은 알기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공유하고자 하며 사랑받는 이에 속한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분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이사 43,4 참조)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을 통해 모든 존재가 생겨난 성자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람됨을 있는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 전체, 우리 가진 바 모두를 공유하기 원했습니다. 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슬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악의 세력이 인간의 폭력에서 떠올릴 수 있는 온갖 고통을 그분에게 가했습니다. 이사야가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이사 53,4) 습니다.

이제 보세요. 하느님의 아드님이며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가 고통 중에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 육신에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는 영광의 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메모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슬픔은 두 마음을 끈끈하게 엮는 데 있어 행복을 능가한
다. 함께 겪는 고통은 함께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강한
연결고리가 된다. — 알폰스 드 라마르틴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의 수난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때에 욕정의
야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놀라게 하곤 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웃어넘기세요.
그리고 패배한 악한 영들을 비웃어 주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친구들과 공감과 연민을 느낄 겁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까운 사이든 아니든, 공감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이들을 적어 보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되풀이: 예수님은 이 힘든 기도를 바치는 동안 친한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겪어야 할 일을 건너뛰고 싶다고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분을 위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르 14,32-42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
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
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
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
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
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지금 여기에서, 어쩌면 뭔가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이에 대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다.

현재 내 생활에서 나는 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인식한다.

때로는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때는 였다.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재능이다.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
아니, 기적이다.

- 시몬 베유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억하세요, 기도를 위한 성경 구절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주님의 수난을 기도할 때는 그저 마음이 가는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조용히 머무세요.
2. 이번 주간에: 당신이 생활하는 주위 공간에 있는 그림이나 미술 작품들을 확인해 보세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지 보세요.
3. 주목할 성경 대목: 이 장면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 가운데 적당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느님이나
주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몇 개의 말을 외워서 당신 것으로 삼아 보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3,33-46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를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
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
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단상 용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 수난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 주는 한 가지에 주목하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없애려고 한 이들을 분명하고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조차 그들을 용서해 주십사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새 계명이 요구한다고 주장한 그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44)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의 실천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마태 5:45)

여기서 예수님은, 일부 번역본에서 말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거나 두에-랭스 번역본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경의 번역이 더욱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 사랑에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 것같이 너희도 너희 사랑에 어떠한 한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마태 5:48)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직면하거나 도전해야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원한을 품거나 비통함에 빠지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은 그들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욱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진정한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이유로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당연히 성부께서 알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당신 자신에게 필요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짓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힘든 어떤 일에 대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따를 만한 대단히 설득력 있는 표본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노력할 때 당신은 자비와 연민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구세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시듯 말입니다.

메모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청하는 은총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한 걸음 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결코 배울 수가 없다.

- 코리 텐 불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를 마칠 때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정성껏 바치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든지 우리 것이지만, 주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며칠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중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 모두를 다 해냈을 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느님이 당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당신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나 당신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에 휘둘릴 이유가 됩니까?
3. 주목할 성경 대목, 되풀이: 이 장면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 가운데 적당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느님이나 주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몇 개의 말을 외워서 당신 것으로 삼아 보세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23,33-46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이 당신을 고문한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다.
이제 자문해 본다. 내 삶에서 용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심으로를 용서하겠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성모 마리아님부터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까지—나는 특히
와 동일시될 수 있다.

표지석

- 지상생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설명은 인간적인 고통에 매우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 나자렛 예수님은 인류가 겪는 모든 것과 우리 스스로가 지우는 모든 것을 끌어안기로 선택하였다.
-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지상 활동을 완성한다고 느낀다.
-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버지께 그것을 면하게 해 달라고 청한다.
- 예수님의 수난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온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 준다.
-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이 결국 영광이 되리라는 희망을 준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